

# 오래도록 살아 있을 책을 만들자

전상운

문화계위원 · 전 성신여대 총장

11월 초에 나는 교토(京都)에 들러 아부치 기요시(藪内清) 교토 대학 명예교수를 방문했다. 중국과학사의 세계적 권위자인 그는 92세의 고령에도 반갑게 나를 맞았다. 응접실 탁자에는 그가 쓴 책 2권이 놓여 있었다. 나와도 인연이 있는 책이어서 준비해 놓은 것이다. 한권은 《중국의 과학문명》이다. 그는 나의 번역으로 멋있는 책이 되어 한국에서 출판된 것이 기쁘다고 인사를 했다. 이 책은 1970년에 '이와나미신서'로 처음 나와서 중국과학사의 명저로 꼽혀 7쇄를 거듭했다. 그리고 1990년에 복간됐다.

다른 한권은 《송·원시대의 과학기술사》였다. 1967년에 출판된 이 책은 그가 이끌었던 과학사 연구팀의 공동연구보고서로 교토대학 인문과학연구소에서 펴낸 학술연구서다. 이런 책도 재판이 되었다면서 그는 흐뭇해 했다. 책값이 3만엔, 우리 돈으로 33만원이다. 하지만 3년 전에 나온 교토의 고서점조합 도서목록에는 10만엔으로 매겨져 있었다. 내 서가에는 비슷한 값이 매겨진 과학사 연구실의 공동연구보고서 7권이 꽂혀 있다. 30년 동안의 중국과학기술사 연구성과들이다. 이런 학술서적이 30년이 지나서도 끄떡없이 제값을 지닌 채로 복간된다는 사실이 이제 일본에서는 조금도 이상한 일이 아니다. 물론 책 내용에 달렸지만, 한편으로는 일본의 학문연구 수준이 선진적인 위치에 다다랐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조셉 니덤의 《중국의 과학과 문명》이 영국의 학문적 수준을 말해주는 것과 같다. 1954년에 첫 권이 출판된 이래 10여권이 나왔고, 앞으로도 10여권을 더 낼 계획으로 그의 공동 연구자들이 집필을 계속하고 있는 이 프로젝트는 20세기 최대의 과학사 연구업적이다. 45년의 긴 세월을 이어왔고 앞으로도 10년 이상 이어져야 완간될 이 학술서적은 벌써 여러번 판을 거듭하여 케임브리지 대학 출판부의 주요 사업이다. 일본어 번역판에 이어 중국어판도 나왔다.

책이란 이런 것이다. 아부치와 니덤의 책들을 펴면서 나는 이런 생각에 빠져 책을 읽지 못하고 바라보기만 할 때가 있다. 내가 그런 책을 써 보겠다는 생각은 버린 지 오래다. 다만 우리나라에서도 그런 책이 나와 주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다. 세월이 가고 시대가 바뀌어도 늘 새로운 이런 책은, 그것이 비록 고서점에 나와 있어도 현 책일 수 없다.

오래 전에 절판된 책이 고서점에서 날이 갈수록 값을 더하게 될 때, 그것은 살아 있는 책이다. 그런 책들이 가득한 고서점은 현책방일 수 없다. 박물관은 낡은 유물의 창고가 아니고 귀중한 문화유산을 보존하고 가르치는 창조의 마당이다. 도서관은 시대를 이끌어가는 좋은 책을 모아 놓은 새로운 문화창조의 교실임을 우리는 잘 알고 있다. 고서점은 현 책방이지만 할 수 없는 것이다.

백화점에선 새로 만든 물건만 가득 모아 진열해 놓지만, 많은 상품들은 해가 바뀌고 유행이 지나면 할인매장에서 싸게 팔린다. 출판사에서 쏟아져 나와 서점에 진열된 많은 새 책들도 마찬가지다. 하지만 책은 문화상품이다. 유행을 타서 한때 반짝하고 지나가는 책이 아니고 많은 사람들에게 오래도록 기억되고 꾸준히 읽혀 제값을 잃지 않는 좋은 책이 많이 나와야 한다. 그것이 새로운 문화창조의 바탕이 된다는 사실을 알고 있다.

우리는 지금 새로운 세기를 맞이하는 길목에 서 있다. 저물어가는 이 해가 가고 1999년이 지나면 국제금융 위기의 찬바람이 휘몰아치기 전까지, 우리나라가 선진국으로 들어설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던 2천년대가 된다. 물질적인 풍요로움에서는 선진국 대열에 끼지 못한다 해도 정신적인 풍요를 누리는 문화적 선진국은 되어야 하지 않겠는가. 그 길이 책 속에 있다. ❖

표지 인터뷰	2	과거를 통해 미래를 보는 역사학의 생명 《현대 한국사학사》 펴낸 조동걸 교수
송년 특집	4	암운 속에 햇살 기다리던 출판계 일년 30개 출판사가 뽑은 올해의 '출판계 톱픽 10'
	8	'고난의 연대'에 꽃핀 강인한 책들
	10	베스트셀러를 통해 본 올해 독서의 흐름
	11	숫자로 이리저리 뜯어보는 98년의 출판가
	12	출판담당 기자들이 뽑은 올해의 출판사·저자 푸른숲 김혜경 대표/생각의나무 박광성 대표 《한국 경제 죽어야 산다》 펴낸 정운찬 교수 《만지일보》 펴낸 김어준씨
	14	각계 50인이 뽑은 '올해의 좋은 책' 86종 인문/사회/문학/비소설/과학/예술/어린이
세계의 출판	20	올 한해 세계 각국의 독서 흐름 프랑스(최연구)/독일(박진희)/일본(이희재)
가상대담	22	겨레 사랑의 화신 '백범 김구'와의 대화 - 김삼웅
만화	23	책과 오과장 - 박시백
나의 초기작과 최근작	24	마르지 않는 국어공부의 기쁨 - 이익섭
인터넷 출판평해	25	인터넷 '클래식스 아카이브' 사이트 - 허명구
서평	26	정재정 《한국의 논리》 - 하종문 딜릭 《전지구적 자본주의에 눈뜨기》 - 김동춘
	27	이은진 《노동자가 만난 유령》 - 노중기
	28	이석우 《대학의 역사》 - 이광주 드러커 외 《미래의 조직》 - 조동성
이달의 출판광고	30	패기 있는 출판인, 아름다운 출판광고 《출판저널》이 뽑은 '올해의 출판광고' 베스트 7
특별기획	32	서점 전문가가 추천하는 '선물하기 좋은 책' 15종
확대서평	34	최준식 지음 《한국의 종교, 문화로 읽는다》(1·2) - 황필호
자료	36	98년도 문화부 추천도서 103종 202책 목록
	38	새책 속으로 / 42 새로 나온 책
	54	출판저널 주제별 총목차 (제227호~제248호)
	60	☞ 김종만 《인스턴트 커피》(마지막회)

표지 사진/한준호

## 알림

본지 12월 20일자 정기휴간

《출판저널》은 연말연시 정례휴가에 따라 예년과 같이  
12월 20일자를 휴간하고, 다음호(제249호)는  
1999년 1월 5일자 신년호로 발행되오니 양지하시기  
바랍니다.